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

김 세 영

기독교간호대학교

Elderly Koreans' Perception of Nursing Homes

Kim, Se Young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Gwangju, Korea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nursing hom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explores the themes of such perception and provides supporting evidence for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that focuses on the subjects of care within nursing homes. **Methods:** This research is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in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d elders aged 67~83 living at home in Jeonnam, Jeonbuk Provinces and G City. Data collection methodologies included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 of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in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by Colaizzi. **Resul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all significant statements about the Korean elders' perception of nursing homes fell within 3 categories with 9 major themes and 23 minor themes. The three observed categories for the Korean elders' perception on nursing homes were: 'places they do not like to be in', 'places they have to be in' and 'places that makes them feel fortunate as they have a place to go'. **Conclusion:**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tools that will provide a steer for changes in nursing environment, physiological support, programs and education so that the needs of the elderly can be met more sufficiently.

Key Words: Elderly, Nursing homes, Perception, Qualitative researc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중심에는 효 사상에 기 반을 둔 노인에 대한 공경과 봉양의 문화가 있어 왔다. 이런 문화 속에서 노인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공경의 대상이었으며, 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권위를 지니는 수직적인 형태의 가족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급진적 산업

화 과정으로 인한 핵가족화는 가족구조를 부부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변화시켰고,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의 가족체 현상과 정보사회로의 급변은 노인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집단으로 분류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부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부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양부담, 저출산율 과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에 따른 가족 내에서의 노인부양의 곤란 때문이다[1]. 이에 대하여 국가는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요어: 노인, 요양시설, 인식,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Kim, Se Young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6 Baekseo-ro, 70 beon-gil, Nam-gu, Gwangju 61662, Korea.

Tel: +82-62-650-8069, Fax: +82-62-675-5806, E-mail: seyeong77@hanmail.net

- 이 논문은 김세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Chosun University.

Received: Feb 5, 2016 / Revised: Sep 6, 2016 / Accepted: Sep 7,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품위있는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의 과중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노인 돌봄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가정의 영역이 아닌,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회적 분담의 과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성인자녀의 부양자 입장과 노인자신에 대한 입장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성인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은 부양자의 개인생활 제약과 육구의 억제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하면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노인의 삶은 그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2]. 그래서 성인자녀에게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부담 감소 및 가족관계의 개선 등을 가져오기 때문에[3] 부양자의 입장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노인세대는 그에 관한 인식과 정서에 있어서 성인자녀와의 차이를 보인다[4].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빗대어 표현하며, 그곳을 무가치감,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인요양시설로 거주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고 자의적이지 않은 격리생활과 통신의 자유 박탈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다[5].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히 경로효친사상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일을 당연한 도리로서 여겨왔으며, 그들의 부모세대에서처럼 가정이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지원관계의 장소로서[2]의 역할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서양의 노인들은 자아및 현실수용, 봉사활동, 목표의식 등을 성공적 노화의 중요 요소로 여기는 것에 비하여[6]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가정 내에서의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7]. 이것은 사회문화적 구조의 특성에 따라 노인들의 행동, 신념, 가치가 다르며 노인의 요양시설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연령계층이론에 따르면 같은 문화권에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한 같은 연령집단은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자란 다른 연령집단과도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현 시대의 한국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함께 한국사회 안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노인은 다른 연령층과 같은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자문화속의 타자'이다.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은 노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노인세대가 지녀왔던 사회적 위치와 권위를 상실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자기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해 이들이 갖는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착 과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노인요양시설로 가지는 않았지만 입소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직접적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나 요구, 소망 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전인적 돌봄은, 노인요양시설이 노인들의 마지막 여생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주환경이 되게 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적합한 삶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입소 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양적 연구인 Kim[8]의 연구뿐이며, 그 외에는 입소한 노인들의 경험이나 적응에 대한 문헌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측정, 객관화시켜 탐구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방법론으로 인식의 보편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노인들이 경험해온 역사 속에서 체득한 사회 문화적 가치로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므로, 이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인식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어 의미를 부여한 자료들을 현상 그 자체로 드러내기 위하여 현상학적 접근이 유용하다[9]. 특히 노인의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돌봄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자연적 태도에서 체험의 사실적 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삼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이며, 이는 체험의 본질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생활세계에 속하는 사실로서의 체험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10]. 후설이 후기현상학에서 제시한 '생활세계로 돌아가는 것'에서의 생활세계는 개념이나 이론적 세계가 아닌 반성 이전의 경험적 세계를 의미한다[11]. 사실적 현상학적 연구는 노인이 스스로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 내용의 특성을 사실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닌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을 통하여, 노인들의 가치체계와 신념,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반영한 인식 내용을 선입견 없이 그

대로 드러내어 기술함으로써 인식경험의 사실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다른 세대의 이해를 돕고, 노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대상자중심의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노인요양시설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연구문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현상의 의미에 따른 주제를 확인하고 기술함으로써 인식 현상 경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현상학적 방법[10]을 적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라북도 J시, 전라남도 J군과 G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없는 노인이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노인의 인식을 주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입소경험이 있거나 입소중인 노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등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 치매 노인을 제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6.5세였으며, 67세와 83세 사이였다.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9명이었고 교육수준은 대졸 1명, 고졸 1명, 중졸 3명, 초졸 4명, 무학 3명이었다. 경제 상태는 중 7명, 하 5명이었으며, 독거노인이 5명, 배우자와 함께 사는 참여자가 4명,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2명,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1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명, 사별이 5명, 별거가 1명이었고, 종교는 불교 4명, 무종교 4명, 기독교 3명, 카톨릭 1명이었다. 1명을 제외한 11명의 참가자들은 퇴행성관절염,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였는데, 일상생활에 심한 제한을 받는 건강상태는 아니었으며, 모두 자녀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기독교간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IRB 승인(승인번호: IRB-13-002)을 받았다.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면담내용은 녹음할 것임을 설명하고 녹음된 내용은 연구 완료 후 폐기할 것과 면담이나 녹음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자료가 포화된 2013년 7월31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로 참여자의 집에서 개인면담이 이루어졌고 때에 따라 노인정에서 집단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면담횟수는 2회에서 4회였고, 최초 면담시간은 40분에서 2시간정도까지 이루어졌으며 2~3회 차 면담시간은 20분에서 1시간이었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의 도구이므로,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질적 연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연구수행에 대한 수련과정을 통해 본 연구를 준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참여자와의 면담, 현장노트와 면담 중의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소형녹음기로 녹취하였고, 참여자의 반응이나 집에서의 생활형태 등 관찰내용을 현장노트에 기록하고 연구자의 생각 등을 함께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상학적 기술을 얻기 위해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은 상호주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우선 면담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자연과학적 태도나 이론적 지식 등의 선입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판단 중지와 함께, 대상자가 생활세계에서 체험하는 인식현상에 집중하였다. 여기서 현상학적 환원과정은 우선 연구자가 선입견에 대한 판단중지를 통해서 참여자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현상에 중점을 둔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료들을 주어진 대로 변질되지 않고 드러난 현상대로 받아들이기 위해[9] 노력하였다. 그리고 면담과정 동안 참여자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선입견이나 주관적이며 무연적인 경험의 수준이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가 노인요양시설 대한 본질적인 요소를 지닌 인식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현상학적 환원을 지속하였다. 면담 후에 녹취된 내용을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필사하고, 자료 중 의미가 분명

치 않은 내용은 추후 면담에서 상호 대화하여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자료분석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는 Colaizzi[12]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면담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뒤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참여자의 진술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 반복하여 읽고 현장노트를 참조하면서 녹음자료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 면담 시에 참여자에게 확인하며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 참여자의 진술내용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을 심사숙고하여 살펴보면서 중복된 표현은 배제하고 보다 추상적인 진술로 본질 인식을 재진술함으로써, 의미있는 진술에서 구체화된 의미들을 주제로 추출하였다.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원자료의 내용과 맥락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그 다음 단계로, 구성된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군을 정리하였고 분석된 자료를 주제군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히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자료를 계속하여 읽으면서 행간 읽기를 계속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본래 뜻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인 구조를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중 3명에게 면담 기록과 분석 결과를 읽어 주어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증을 받았다. 또한 연구참여자 이외의 J군에 거주하는 노인 2명에게 연구결과를 읽어주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내용이 의미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에게 연구 결과 해석에 대한 심도깊은 상담을 받고 본 연구 과정 전반과 연구결과에 관해 간호학 교수와 박사수료자 등에게 자문을 받아 주제 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수집된 원자료로부터 Colaizzi[12]의 분석방법으로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주제는 총 22개였

고 9개의 주제군과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3개의 범주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가야만 하는 곳’,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하위범주와 범주들은 독거노인이나 가족과 사는 노인모두에게 상황적 맥락과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도출된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1. 범주 1: 가고 싶지 않은 곳

1) 버려지는 곳

(1) 자녀 곁에 있을 수 없게 됨

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살거나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노인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노인요양시설은 자녀 곁을 떠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노인들은 자녀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운명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세상을 마치고 싶은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지금 맘도 자식보호를 받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역시 있겠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 마음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누구나 속마음은 자식하고 살고 싶겠지 요양원에 가면 자식이 찾아오기 전엔 볼 수도 없어. 입원시켜놓고 처음엔 찾아오다가 나중엔 오지도 않는다잖아.(참여자 8)

(2) 내 집을 떠나게 됨

참여자들은 집을 거주 공간 그 이상의 삶의 안식처로 여겼으며 노인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집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집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표현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안식처의 상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찌 집이 안식처인데 안식처만하겠어. 요양원이 아무리 좋은들 집 같을 수는 없어. 집은 내가 평생 살아왔고 사랑의 보금자리고 그야말로 내행동이 자유로운 곳이 내 집이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자유로워서 집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 모든 사회여건과 환경이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지.(참여자 3)

(3) 고려장처럼 버려짐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병든 부모를 모시기 귀찮아서 자신들

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인요양시설은 현대화된 고려장 장소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고려장처럼 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효심이 많은 자식들은 그런데 보내질 않죠. 안 보내죠. 효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죠. 갖다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옛날 같으면 고려장이라고 있죠.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돌아가실 때 되니까 거기 있다가 돌아가쇼 그것밖에 더 되요? 옛날에는 먹을 거 다해 갖고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사람 집어넣어서 그거 먹고 떨어지면 땅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고려장 같은 그런 식. 현대화된 고려장이죠. 쉽게 말해서, 알고 보면 현대화된 고려장이예요.(참여자 4)

2) 자유가 없는 곳

(1) 간혀 살아야 함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외부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감금된 느낌을 받게 되고 자유가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곳의 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잠가져 있는 문 때문에 간혀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밖에 나갈 수도 없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금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 영감님 있는데 가보면. 거기에서 다른 데로 나가지도 못 하잖아. 나갈까봐 쇠를 채워놓고 그러니까 간혀 있는 느낌이 들고. 늙은 사람은 그렇게 쪼루질 않으니까 문제지. 감금하듯이 되고 해서 주고 정확히 재서 주니까 그것이 답답해서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아. 밖에도 맘대로 못나와. 거기 들어가는 날이면 밖에도 못나가(참여자 5)

(2) 제한과 규칙이 많은 단체생활을 해야 함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제한과 규칙이 많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곳으로, 그런 불편들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자신은 약자이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고 누군가에게 얽매어야 하는 곳이어서 그곳에 갈 마음이 없다고 강력히 부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요양원은 어떤 제한이 있겠지 누구한테 얽매어야 하고. 평생 내 맘대로 하고 살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 들으며 살려면 힘들겠지.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자기들 편

한대로 이려고 저려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찌. 참고 살아야지 내가 약잔데(참여자 7)

3) 살아서는 못나오는 곳

(1) 건강이 더 나빠질 것임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얽매어 살면서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오히려 환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활발했던 성격도 변하게 만드는 노인요양시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더 못쓰고 상태가 더욱 나쁘게 만드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가서 자유 없이 그냥 얽매어 있으면 걸음도 못 걷고 그러면. 내가 경험삼아서 보면(남편이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심) 갈 때까지도 간 날까지도 다 좋아갖고 들어가는데 거기가면 이상하게 환자가 다 되버리더구만. 그런 면이 있더라고. 면회를 가서 보면 오늘은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들어올 때 보고 며칠 있다 가서 보면 그 사람들도 더 힘을 못 쓰고 더 이상해져버리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서 자연히 더 안 좋아지더라구. 좋아진 것은 아니고 더 안 좋아지더라구.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참여자 5)

(2) 목숨만 부지함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자기 생활이 지속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저 목숨이나 부지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집에서 살다가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참여자들의 소원이었다.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노인요양시설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목숨만 부지하는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요양시설이 뭐 그리 좋겠어요. 그냥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체력이 됐고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죽음밖에는 죽는 거 밖에는 없지. 뭐 굉장히 친한 것도 아니고 젊어서 그런 기쁨도 없고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야 진짜 뭐 그렇게 좋겠냐고.(참여자 2)

(3) 죽으러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함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이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오는 징역살이 하는 곳이며 죽으러 가는 곳으로 일단 들어가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던 옛날과는 달리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원으로 옮겨 가듯이 노인요양시설은 최후의 장소로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옮겨 가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죽으러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한대. 징역살러가. 쉽게 징역살러가는 거야. 거기 들어가는 날이 면. 죽으러 가는 거여 좌우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와. 돌아가셔야 나오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나와.(참여자 9)

2. 범주 2: 가야만 하는 곳

1) 자녀를 위해 가야 하는 곳

(1) 자녀의 짐이 되기는 싫음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로 가기 싫은 마음보다 자식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다고 하였다. 노인들은 부모 부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자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서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병이 들면 노인요양시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밥도 못해먹고 하면 자녀들이 매달려 있는 게 싫어. 나도 자유롭고 싶고 자녀들한테 죽을 말년에 자녀들도 살기 바쁘게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게 부모들은 너무 싫기 때문에. 나 땀에 자식이 고생하는 거 젊은이들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가르치듯이 그렇듯이 부모인 나 땀에 자식이 며느리가 사위가 아들이 고생을 한다면 너무 싫지. 사랑하는 까닭에.(참여자 3)

(2) 며느리 눈치보며 살기 싫음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며느리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요즘의 노인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도 조심하게 되고 시부모가 며느리시집살이를 한다고 하였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해도 남의 자식인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아들부부사이의 갈등으로 아들이 힘들어 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며느리 눈치를 자꾸 보게 되었다.

첫째는 며느리한테 부담스러울 것 같애. 아이구 저 늙은이가 아파가지고 죽지도 않고. 자식은 엄마를 그런데 보내기 싫어서 그러는데 자기 아내는 나는 그런 짓은 못한

다 힘들다 그러면 부부간 사이도 부모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 그건 사실이야. 아들은 아주 효자 아니고는 못해. 며느리 똥이니 부모는 며느리한테 그런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내가 그걸 피해줘야지.(참여자 2)

2)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만 하는 곳

(1) 병수발 해줄 사람이 없음

참여자들은 병이 들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더라도 며느리들이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려 병수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몸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노인요양시설은 보내달라고 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가야하는 곳임을 강조하였다.

일해야 먹고 사는데 어매가 대소변 받아내고 싸고 있으면 누가 그놈 처단하고 살수가 없어. 내가 노인이 되어서 늙어서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는데 만약에 치매가 와서 하나가 반드시 딸려야 하거든. 벌어먹고 사는데 딸려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가야 돼.(참여자 5)

(2) 정신줄을 놓으면 보내지게 됨

참여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은 기어다닐 수만 있더라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정신줄을 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좋은 정신 상태로는 못 갈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신도 없고 치매가 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자녀들이 노인요양시설로 보낼 것이므로 미리 그곳으로 갈 것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신 초롱초롱하게 있다가 정신줄을 놓으면 멍청이 되면 그때 데리다 넣을 것이여. 우리처럼 초랑초랑하면 안 데리고 갈 것이고. 몸을 못 쓰고 아무 것도 못해 먹고 그러면 갖다 넣는 것이지. 그때는 나도 정신도 없게 데려가는데 뭐하는지 물어(참여자 11)

(3) 가지 않겠다고 말할 자신이 없음

참여자들은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노인요양시설로 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 없고 생각이 있어도 표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일 뿐 내색은 못하고 서운하기만 하다.

그럴 줄 알고 있어도 어쩔. 미리 딱 거시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모시고 살라고 말소리는 못하지. 우리는 의무적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세대가 세대니만큼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아무리 수족을 못 쓰고 그래도 너희가 나를 갖다주지 말고 나를 너희가 모시고 살아라 할 말을 못해. 못하지. 그만큼 다 살아서 그런 건 못해. 현재 내가 80을 먹었으니까 나 이리 이리 아프니까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이래야 하잖아. 못해. 어쩔 자연히 그렇게 되네. 어찌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이기적인 맘이 들어가 이중으로. 표현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참여자 5)

3) 시대에 밀려서 가야 하는 곳

(1) 달라진 가족문화를 체험함

참여자들은 과거에는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제도가 없어서 연로하신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전부이고 효도인 줄 알았고, 며느리가 살림만 하여 부모부양이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변화된 현대의 가족문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진 노인들은 달라진 가족문화를 받아들이고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때만 해도 가부장제도가 만연되어 있고 아버지 엄마는 반드시 아들며느리가 모시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차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나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느 날 사회가 산업화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또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세상을 마칠 때까지 공양하고 모시는 것이 효도의 길이지만 오늘날 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합니다.(참여자 1)

(2) 노인을 싫어하는 세상을 느낌

참여자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어른을 존경하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노인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고 부모부양을 피하는 시대여서 오히려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싫어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천지가 노인이야. 노인이 노인을 봐도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모든 차림도 그렇고 노인 들은 한말 또 하고

노인들은 참 어려워. 천지가 노인이고 자기들도 노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노인이란 자체를 참 싫어하지 젊은 사람들이.(참여자 3)

(3)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해야 함

참여자들은 자녀가 노인요양시설로 부모를 입소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더라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하고 있었다.

요즘은 세상이 그러니까 자식이 요양원으로 보내는 걸 당연히 여겨도 그냥 받아들일 거 같아요.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모든 환경이 그렇잖아요. 누가 와도 그렇고 손님이 와도 불편 하고. 요즘은 거의 맞벌이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노인을 보려고 안하지. 치매 걸린 노인네 감당하려고 그러나요 젊은 사람들이. 나라도 안 하겠네 내가 자식이라도 안 하겠네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요(참여자 4)

3. 범주 3: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

1) 피난처가 되어 주는 곳

(1) 늙고 병들면 갈 데가 있으니 안심이 됨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가고 싶지 않지만 갈 곳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녀에게는 의지하고 싶지 않고 눈치보며 사는 것도 싫은 노인들은 그런 데라도 있다는 것이 차라리 안심이 된다고 표현하였다.

그래도 내가 병들어서 오도 갈 데가 없으면 그런 데라도 있다싶으니까 안심이 되지. 눈치보고 하느니 차라리 요양원에 가서 노후를 마치는 게...(참여자 7)

(2) 노인요양시설이 차라리 마음 편함

참여자들은 노화와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를 도울 수 없게 되면 자녀와 함께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이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차라리 편한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요즘 며느리들이나 딸들이나 다 직장생활을 하잖아. 그

러면 집에 남아있는 건 노인네들뿐이 야. 그러면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힘이 있을 때 같으면 괜찮은데 힘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도 못하고 집안 살림도 돌봐줘야 하는데 힘이 부족할 때는 차라리 요양원이 편치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참여자 2)

2)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1) 의식주의 어려움이 해결됨

참여자들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이 좋지 못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식사해결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식사, 빨래, 목욕 등 다양한 생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아프면 간호도 해주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벌어지는 상황은 자녀라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어 다행인 것이다.

집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앓고 나면 뭘 먹어야 기운이 나는데 뭐든지 먹기가 싫어 다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으니까 음식을 할 꺼리도 없고 하고나면 지치고. 양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간도 안 되는데 몸은 벌써 지치고.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같애. 몸은 벌써 지쳐서 부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래서 요양원에 가는구나 아파서 가는 것보다도. 이런 관점이 있어.(참여자 12)

(2) 죽음 앞에 혼자 방치되지 않아도 됨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해 줄 것이므로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다행이라고 하였다. 또한 혼자서 죽어가는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양시설이 없으면 지금 노인네들 웬만하면 다 바깥에서 죽을걸? 그러니까 지금 생활에 불편한 사람 독거노인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아들며느리도 모르게 죽고 결국은 이웃사람에 의해서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죽음을 알게 되는 이런 사회가 댤단 말이야. 그러나 요양원에 가있으면 통보는 해준단 말이야. 자녀들에게 통보는 해 줄꺼야 그러나 혼자 있으면 혼자 죽는데 누가 통보를 해주겠냐구.(참여자 11)

3) 사람들 속에 살 수 있는 곳

(1)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음

참여자들은 노인들이 정말 외롭다고 하였다.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다 병들어 죽어가는 것 보다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식이야기도 하고 지내는 것이 외로움을 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양반들은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지고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엄마야빠를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는 요양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같은 노인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며 즐기며 생활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1)

(2) 같은 처지가 위로가 됨

참여자들은 노인의 입장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보다 같은 입장의 노인끼리 더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동체생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모두 같은 처지여서 높고 낮음 없는 상태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오락시설들이 노인들을 지루하지 않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똑같은 입장인 사람들 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사는 거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똑같은 처지니까 노인들. 높고 낮음이 없이 높으면 이런데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보다 하고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참여자 2)

논 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한국노인의 인식에 대한 현상은 ‘가고 싶지 않은 곳’, ‘가야만 하는 곳’,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의 3개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우선 참여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노인들은 그곳을 자녀 곁을 떠나 버려지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의 삶의 중요한 의미가 자녀, 손자녀와 관계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한 삶의 보상을 가족의 관계로부터 받으려 하는데서[13] 기인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

은 단순히 거주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안식처의 상실을 의미한다. 전통사회를 살아온 노인들이 갖는 집의 개념은 나만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현대사회의 집 개념과는 다르다. 한국노인들은 집을 가족이 삶을 누리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 친족공동체의 끈끈한 연대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14]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옛날의 고려장처럼 버려졌다고 인식하며 자아정체감의 위기까지 경험한다[15].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의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아래 형성되었다. 미국 내의 아시아 노인이 백인노인에 비해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적다는 연구결과[16]는 가족관계를 통해 노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효에 관한 유교적 전통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집과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노인들의 상호작용과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단절로 인한 혼돈이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치유적 환경이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절망감, 외로움, 고독감 등을 지니고 사회와 단절될 것을 예상하여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예상대로 입소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활동에 제한이 있고 공동생활과 통제된 생활이 노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함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17].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여건은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개인을 존중하는 돌봄을 수행하기에 일과와 규칙의 제약이 많고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위해 집단적인 돌봄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노인요양시설이 노인들에게 평생 동안 익숙했던 기존의 인간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수용시설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규율을 떠올리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할 것에 대해 갖는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존엄을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주체적으로 삶의 환경을 구성하거나 생활의 질서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기능 및 심리, 정서적 상태의 호전 정도는 재가서비스보다 현저히 낮다[19] 그뿐만이 아니라 입소한 노인들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주위사람을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함에 따라 지속적인 두려움과 위협을 체험하며[20], 특히 치매노인과 노인요양시설에 함께 한 입소자들은 치매노인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신 삶의 에너지가 더욱 고갈됨을 호소하였다[21]. 이

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어쩔 수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기 위한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단지 부정적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을 찾는다[22].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이 실제로 돌봄을 포함한 의료적 처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며, 집에 거주할 때보다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로, 참여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은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것을 노인 스스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나라의 부모든지 자녀가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고 부모는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만 특히 한국 노인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자녀에게 강한 애착을 갖는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도 서양과 달라서 서양의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 배우자와의 행복한 가정생활과 만족스러운 관계[23]인데 반하여, 한국노인은 자녀가 잘되는 것과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이므로 자녀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인요양시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7]. 또한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노인들은 가족 관계에서 특히 여성의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노인의 특성이 혼재하여 일어나는 며느리와 시부모와의 정서적 갈등이 크다. 현대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의 봉양에 대한 전통적 역할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며, 동시에 노인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내향성 및 수동성과 조심성이 증가되어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은 ‘며느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라리 가족관계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어쩔 수 없이 입소하게 되는 것이다[24].

참여자들은 병수발 해줄 사람이 없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자녀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노인요양시설을 자신의 지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 권위를 잃어 노인요양시설 입소과정에서도 노인 자신의 입소결정권이 없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나 자식과의 동거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삶을 선택하고 싶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노인들은 ‘정신줄을 놓으면 보내지게 되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 결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의사 반영자는 아들, 딸, 배우자 순이며[19]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입소결정은 어쩔 수 없는 이루어지는 비자발적인 것이었다[15]. 그래서 가

족들과 노인시설관계자들은 비자발적 입소가 지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노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노인에 대한 인식과 같이 노인자신도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회적 참여를 피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변화된 가족문화와 노인을 싫어하는 세대를 몸으로 느끼지만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와 전쟁체험세대인 노인들은 전통적인 효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삶을 거스르지 못할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 노인요양시설을 갈 수 밖에 없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노인들이 사회적 변화안에서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가고 싶지 않으나 가야만 한다는 비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늙고 병들어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는 그곳이 차라리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자녀에 대한 부담감과 미안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15]. 이것은 노인이 자녀에게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음에도 자녀 곁에 머무는 것은 자녀에게 짐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한국노인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부모로서의 만족감을 얻을 때 성공한 인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7]

참여자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갈 곳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특히 대소변 처리에 대한 해결을 다행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배변, 위생 관련 기초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25].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죽음 앞에 혼자 방치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한국노인들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이란 가족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이지만 또한 자식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26].

참여자들은 질병, 상실, 두려움, 무력감, 위축 등으로 인한 외로움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외로움을 덜어내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노인요양시설의 현실은 입소자간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과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가져오는 환경이라는 것이다[20]. 이런 현상은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또한 공동생활은 갈등과 불안, 외로움, 스트레스나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가져 오기도 하며, 거기에서 노인들은 천차만별의 동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간다[24]. 그러므로 새로운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초기 입소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적응하여 자기 삶에로의 통합과정을 돕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포편적으로 인식하는 주요 현상은 바로 이 세 가지 범주인 가고 싶지 않은 곳, 가야만 하는 곳, 갈 곳이 있어 다행인 곳으로, 인터뷰 내내 참여자인 각 노인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비우스띠처럼 교차되고 혼돈하다가 뒤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의 주요 패턴은 순환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노인들에게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은 ‘가게 될 곳’이다. 노인요양시설로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아는 노인들은 가야만 하는 현실에 대하여 부정과 분노를 나타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곳으로 그곳을 재인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것은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복잡한 양가감정들이 재통합될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시설에 대한 요구인 것이다.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가고 싶지 않은 곳’, ‘가야만 하는 곳’, ‘갈 곳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곳’으로 인식한 본 연구결과는 ‘체념’이라는 복합적인 인식 현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노인들은 가정안에서의 삶에 대한 가능성이 무너짐에 대해 분노하며 체념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러한 추구가 무의미한 헛수고임을 알고 수긍하여 노인요양시설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노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이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체념하며, 자신의 상실을 덮고 스스로를 위한 위로를 찾아내어 노인요양시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노인들은 해방 후의 혼란과정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였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변과정을 겪으면서 전통사회와 현대적 가치관을 오가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듯 급격한 역사적

변화에 따라 한국노인들이 체득한 체험의 깊이는 가능성의 한계를 긋고 가족 내의 의존적인 생활을 견딜 것 같지 않아서 또 다시 마음을 접고 새로운 가능성을 남겨둔 체념상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삶에 대한 뒤쫓던 가능성에 대한 체념을 통하여 얻게 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대는 바로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변화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 요구는 노인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며 다른 세대와의 상호 이해와 유대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 '거주공간으로서의 노인요양시설'에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 간호와 관련하여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의 특성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타자로서의 노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의 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간호사가 전인간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담긴 그들의 인식 현상과 실존적 삶의 과정에서 노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노인돌봄을 위하여 노인들이 바라는 집과 같은 삶의 장소로서의 노인요양시설 변화 모색이 필요하고,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의 인식 이해를 도움으로써, 노인이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개별 간호 실시 등 간호실무 적용이 요구된다. 그밖에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요양시설이 가족과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고 더 편안한 여생을 위한 장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노인요양시설 자체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서비스의 질 평가 연구 등의 노력을 통해 노인부양의 사회적 분담 노력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친숙한 생활세계로부터 이탈되는 소외의 경험을 최소화하여 삶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돕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한국노인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현상과 그 의미를 드러내어, 이를 기반으로 한국노인의 인식을 깊이 이해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 중심의 돌봄이 되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를 지니며, 이 권리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삶을 체념함으로써 가게 되는 노인요양시설을 더 이상 갈 수밖에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다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인의 노인요양시설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나 노인 간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체로서의 한국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시설의 개선과, 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과 전인간호를 위한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교육 등의 제도적 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노인이 처한 생활세계의 실존적 삶의 맥락 속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적 현상학적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노인의 자기존중과 자기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체로서의 노인 중심의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노인 부양가족과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0 population policy seminar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3 [cited 2013 April 13].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aSeq=71064
2. Yang ON, Kim HK, Kim MS, Jung SD. Welfare for the aged. Goyang: Gongdongchei; 2009. 311 p.
3. Lee MS.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giving burden of the elderly before and after entering nursing home. *Journal of Korea Care Welfare*. 2009;11(1):27-43.
4. Cho YH. Reviewing folk tale of Goryeja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11;20:15-22.
5. Cho WH. Effects of the resident's human rights on abuse-drive conditions to staffs in nursing home for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08;41:429-450.
6. Baek JE. Successful aging perceived by Korean elderly: Cross-cultural perspectives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6. 155 p.
7. Kim HK. Gender difference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ccessful aging among rural community-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2;32(3):

- 819-834.
8. Kim DK.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preference of the elderly about the use of nursing facilities -Focusing on rural districts in the northern Gyeongbuk-. [master's thesis]. [Daegu]: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1. 81 p.
 9. Crotty M.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South Melbourne: Churchill Livingstone; 2000. 202 p.
 10. Lee NI.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2005;24:91-121.
 11. Hong SH.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aring in nursing science.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2011;50: 213-241.
 12. Colaizzi P.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8-71.
 13. Kim TS, Seo SN. A qualitative approach of the elderly's lives through the life history research: Focused on the elderly who lived hom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12;57:381-401.
 14. Shim JH. An imagination of a house on baekseok's poetry.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2012;16(4):191-212.
 15. Shin KA. Defamilization of elderly care and the experiences of the age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11;45(4):64-96.
 16. Buchanan RJ, Rosenthal M, Graber DR, Wang S, Kim MS. Racial and Ethnic Comparisons of Nursing Home Residents at Admi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2008;9(8):568-579.
<http://dx.doi.org/10.1016/j.jamda.2008.04.012>
 17. Hong SY, Seo JH. The study on commodification of filial piety through long term care servi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12;57:51-83.
 18. Choi HK. 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families and care workers on elder care services in nursing facilities. Family and Culture. 2010;22(4):1-31.
 19. Choi IH, Kim EJ, Chung SY, Yang NJ. The impac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the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Focusing on quality of life and family relationships. 2012 English Research Paper. 2012;5:1-56.
 20. Goh JK, Hwang IK, Oh HY. The experiences of the newly admitted elderly residents in nursing hom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09;29(2):477-488.
 21. Gorman L. 'I'm on edge all the time': "Residents' experiences of living in an integrated nursing home." The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6;13(3):7-11.
 22. Hjaltadottir I, Gustafsdottir M. Quality of life in nursing homes: Perception of physically frail elderly resident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007;21(1):48-55.
 23. Crosnoe R, Elder GH.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2002;65(4):309-328.
 24. Lee GE. Life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001;12(1):32-38.
 25. Ann YC, Han KS. An empirical study on critical factors of customers' satisfaction of care facilities for the aged. The Journal of e-Business. 2007;8(2):221-249.
 26. Kim MH, Kwon KJ, Lim YO. Study on 'good death' that Korean aged people recognize-blessed dea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4;56(2):195-213.